

지역 소식통

부안군, 상습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특별한 운영

부안군(군수 권익현)은 건전한 납세문화 조성을 위해 상습·고질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특별반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번호판 영치는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의 번호판을 영치함으로써 차량 운행을 제한하고 납세자가 자진 납부하도록 유도하는 행정제재이다.

군 올해 지방세 체납액의 10%가 자동차세로 금액은 3억 7000만 원에 달한다.

이에 따라 군은 재무과장을 총괄반장으로 이달부터 번호판 영치 특별반을 편성해 강력한 징수 활동을 하고 있다.

번호판 영치 대상은 군은 자동차세 2회 이상, 군의 지역은 자동차세 3회 이상 체납 차량이며 영치 특별반은 매주 3회 이상 차량 밀집 지역을 순회해 체납세금 징수 활동을 지속할 방침이다.

/부안=김석진 기자

정읍시,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의료비 지원 큰 호응

정읍시가 기초생활수급 신청자들의 의료비 부담을 덜기 위해 근로능력평가용 진단비를 지원, 시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근로능력평가란 기초수급자 중 질병이나 부상으로 치료 또는 요양이 필요한 사람을 대상으로 근로 가능 여부를 판정하는 제도다.

하지만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병원 진단서류를 발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시는 2021년부터 진단의료비 지원 사업을 시행해 왔다. 현재까지 약 700명이 혜택을 받았다.

이 사업은 18세 이상 64세 이하의 기초수급 신규 신청자 또는 기존 대상자를 지원하며 진단서 발급일 기준 2개월 전까지의 의료비를 연간 1회, 최대 3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다른 질환이 있는 경우 최대 3회까지 지원된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다.

/정읍=김대환 기자

주민이 직접 그린 미래 청사진

정읍시, 7개 마을 비전 수립 완료... 지역 공동체 활성화

정읍시가 '정읍마을만들기 시민참여대회' 뿌리단계에서 선정된 7개 마을을 대상으로 진행한 '마을 비전 수립'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주민들이 직접 마을의 미래를 설계하며 지역 공동체 활성화에 한걸음 다가갔다. 이번 마을 비전 수립 워크숍은 주민이 주체가 돼 마을의 미래를 구상하고 비전을 설정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주민들은 마을 발전을 위한 의견을 제시하고 조율하는 과정을 통해 지속 가능한 발전 방향을 모색했다.

워크숍은 퍼실리테이션 기법을 활용해 3시간씩 총 2회 진행됐으며 7개 마을에서 주민 200여 명이 참여했다.



1회차 워크숍에서는 타 마을의 성공 사례를 공유하며 주민들의 관심과 이해도를 높였고 각 마을이 보유한 자원을 발굴하고 문제점을 분석해 실현 가능한 발전 방향을 설정했다. 이어진 2회차 워크숍에서는 마을의 미래 모습을 구체적으로 연상하며 비전과 목표를 수립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실행 계획을 마련했다.

이와 함께, 오는 3월 중순에는 마을 만들기과 지역사회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공동체 조직화, 주민 동기화 방법 등 공동체 사업 전반에 대한 실무 교육도 진행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지역 공동체 리더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이후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시범사업을 운영해 공동체 활성화를 더욱 촉진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주민들이 마을의 미래를 스스로 설계하고 공동체 의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사)정읍시지역활성화센터 이봉열 이사장은 "마을 비전 수립을 통해 주민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공동체 의식을 높임으로써 활기차고 살기 좋은 정읍을 만들어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고창군, 올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2600명 입국 시작

지난해 1800명서 대폭 늘어

고창군 농촌 일손을 도울 외국인 계절근로자 2600명이 입국을 시작했다. 올해 고창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 인원은 지난해 1800명에서 대폭 늘었고 전국에서도 가장 많다.

12일 고창군에 따르면 일주일새 인천공항을 통해 베트남 재입국 계절근로자 200여명이 입국해 농가 대표들과 인사를 했다. 삼덕읍 고창군수도 농산물 유통센터에서 열린 환영식에 참석해 고창에 도착한 이들을 반갑게 맞았다.

지난달 100여명의 근로자가 입국해 지역 농가에 배치됐고, 3월 중 1500명 을 시작으로 올해 2600여명의 계절근로자가 고창에서 일손을 돕는다. 이번 입국으로 지역내 일손 부족 문제 해결은 물론 안정적인 농산물 생산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이 기대되고 있다.

특히 고창군 행정도 '전국 최대규모' 외국인계절근로자 선도지역에 걸



삼덕읍 고창군수는 농산물유통센터서 열린 환영식에 참석해 이들을 반갑게 맞았다.

맞게 다양한 정책사업을 시행한다. 먼저,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의 상황에 정통한 계절근로자 전문관을 최대 6명까지 채용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1일 2농가 방문 △인권지킴이 △365통역제도 등을 확대 운영해 농가와

근로자들의 원활한 소통을 돕는다. 또한 계절근로자 기본권 보장을 위해 △무료 건강검진 △사랑의 옷 기부 행사 △관광지 무료관광 △작업영농관 무료 영화관람 등도 추진된다.

/고창=김영식 기자

농어촌공사 부안지사, 농업 경쟁력 강화... 사업설명회 개최

한국농어촌공사 부안지사(지사장 김원중)는 12일 회의실에서 권익현 부안군수, 박병래 부안군의회 의장, 농업인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농지은행, 배수개선 및 물관리 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농지은행 제도를 활용한 농지 임대·매매 지원과 배수개선 사업을 통한 침수 피해 예방, 효



율적인 물관리 대책 등 소개와 사업 신청 절차 및 지원 방안을 안내하기 위해 마련됐다.

농지은행을 통한 고령 농업인의 안정적인 농지 임대, 청년농·귀농인의 농지 확보 지원 방안 등에 대한 질의응답으로 농업인의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부안=김석진 기자



5개 과정 운영, 교육과정 다양화

고창농촌개발대학, 2025년 입학식 개최... 신입생 186명 맞이

고창군이 12일 농업인회관 3층 대강당에서 경쟁력 있는 농업인력 육성을 위한 고창농촌개발대학 입학식을 개최했다.

이날 입학식에는 삼덕읍 대학장(군수), 조민규 고창군의회 군의장 입학생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농업기술센터 현행열 소장의 특강과 강호형 고 학생들의 오케스트라 공연 등 신입생들의 새로운 출발을 축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고창농촌개발대학은 전문지식 이론과 현장 교육을 연 20회 내외로 3월부터 11월까지 진행한다.

특히, 농업인 수요를 반영한 희망학

과 5개 과정을 개설, 교육과정에 다양화에 힘썼다.

개설 과정으로 정규과정(4개과/166명) △농업리더과(44명)는 농업인의 전문기술 교육 및 자기개발 능력 향상을 통한 농업리더 양성 △수박·멜론과(47명)는 고품질 수박, 멜론 등 시설작물의 명품 브랜드와 △복분자과(45명)는 복분자 재배농가 육성 △시스마트농업과(30명)는 AI 농업적 활용을 통한 6차산업의 고도화, 특별과정(1개과/20명) △음료배리어이션과(20명)는 고품 특산물을 활용한 과일청 음료 제작을 목표로 운영된다.

/고창=김영식 기자

정읍시, 동학농민혁명 대상 후보자 추천 접수

동학농민혁명의 정신을 계승하고 발전시킬 주역을 찾는다. 정읍시는 제58회 동학농민혁명기념제를 맞아 '동학농민혁명 대상' 후보자를 추천받는다. 12일 밝혔다.

올해로 15회를 맞는 '동학농민혁명 대상'은 정읍시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수여되는 상으로, △동학농민혁명 계승과 발전에 공헌한 단체 또는 개인 △학술·연구·문화 사업을 통해 그 정신을 널리 알린 단체 또는 개인에게 주어진다.

수상자는 동학농민혁명 관련 기관·단체장 전국 지자체장·학교장, 정읍

시 내 실과소장·읍면동장, 학자 등의 추천을 받아 '동학농민혁명정신 선양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된다.

대한민국 국민 또는 단체라면 누구나 후보자가 될 수 있으며, 최종 수상자에게는 2000만원의 상금과 함께 상패가 수여된다.

한편, 동학농민혁명 대상의 첫 번째 수상자는 2011년故김대중 前대통령이 있으며 지난해에는 이만열 국사편찬위원장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수상 후보자 접수는 오는 4월 4일까지 정읍시청 동학유산과(☎630-539-6822)로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시, 국가유공자 보훈 주거환경 개선 지원

정읍시가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한다. 25가구를 대상으로 도배, 장판, 싱크대, 화장실, 창호 교체 등의 수선을 지원할 예정이다.

시는 시비 1억원을 투입해 가구당 최대 400만원까지 지원하며, 주택 내부의 노후된 부분을 보수해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이 보다 편안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신청 대상은 호국보훈수당을 지급받

는 국가유공자 본인, 미망인, 선순위 자녀다. 신청 기간은 4월 2일까지다. 신청을 희망하는 가구는 거주지 행정복지처에 방문해 신청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시는 4월 중 신청서를 검토해 지원대상자를 선정하고, 10월까지 모든 수선 작업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화수 시장은 "국가유공자는 대한민국의 독립, 자유, 평화를 위해 헌신한 분들로 그들의 희생과 공헌이 오늘날의 대한민국을 가능하게 했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전주매일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착한신고

"신고하는 당신이 영웅입니다"

아동학대 범죄를 알거나 의심만 되어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전화: 국번없이 112
방문: 관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행동적징후

- 어른과의 접촉회피
-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에 대한 두려움
-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 위험에 대한 지속적 경계